

## 선교지의 COVID-19를 위한 기도

최윤섭  
COVID 19에서 회복되었고, 현재 요양 중이십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롭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2명 그리고 폐렴환자 4명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형민  
폐 CT 사진을 찍었는데 폐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25명분의 치료를 위한 약과 마스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김봉년  
예카테린교회의 찬양 인도자 1명, 부목사님 부부, 이글목사 사모와 성도 1명이 총 5분이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기도제목

- 탄자니아 정부진, 조재숙
1. 저희 부부의 재충전과 코로나 후에 사역의 방향을 잘 세우도록
  2. 어머니 건강과 자녀들을 위하여
  3.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4. 4,6학년 국가 시험을 잘 치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5. 올해 저희 초등학교 첫 졸업생이 생깁니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남영미
1.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닫힌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함께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2. 동역 해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도록
  3. 늘 성령충만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사역과 가정이 되도록
  4. 현지 성경 번역 조력자들을 위한 언어학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현지 성경 번역 조력자들도 모어를 잘 이해해서 성경번역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5. 파푸아뉴기니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경번역 선교사들과도 협력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 사할린 김성민 지경
1. 사할린 Covid 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할린은혜교회 이길원목사(사모도 확진자) Covid19 로 폐렴까지 진행되어 병원 치료 중, 교회 사역자 및 다수 성도들이 확진 되어서 강력한 기도 필요함
  2. Covid 19 확진자 발생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데 사할린 은혜중앙교회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3. 1기 신학생들의 3개월 사역 훈련을 온전히 마치도록, 2기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9월예정)
  4. 천병기(천사라)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5. 저희 선교사 가정 건강과 안전, 성령충만위해서

- 태국 박경덕 신미선
1.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2. 버플러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3. 세명의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4. 가족들이 건강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도록
  5. 첫째 아들 학교 전학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 은혜한인교회

2020년 7월 19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 두메산골 이야기

-A국 최OO 선교사-

평안들 하시지요?  
두메산골 최선생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치료도 잘 마치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여름사역하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주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30년간 1님은 사명을 위해서 몇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7년 내전 중에 몇번의 총구 앞에서 생명을 지켜 주셨고 교회의 폭탄테러에서 생명을 지켜 주셨고 아프리카에서의 몇년간 수많은 지뢰밭에서도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건재하며 예루살렘으로의 전진을 계속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70 먹은 사람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키 위해서 힘써 기도로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심에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듯이 더욱이 다시 오실 1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1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며 기도만이 생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해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오래 전에 하려고 계획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동안 뒤로 미루어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1님이 예비한 땅 구입과 건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 해주십시오. 마지막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구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편지로는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가 없네요. 건축할 땅 구입과 건축을 도울 수 있는 건축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 선교소식

-탄자니아 정부진 조재숙 선교사(선훈1기)-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전세계가 코로나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변함 없는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천에 둘둘 말아 도로에 내어 놓으면 방역 요원들이 가지고 가는 상황에 하늘길이 막히고 학교, 호텔등 모든 것들이 정지된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사관에서 어렵게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지난 5월 8일 입국하여 자가 격리 후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역한지 올해로 13년 차인데 처음으로 85세 되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로 건강이 안 좋으신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혼사문제와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후에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이어집니다

# 선교소식

## 은혜한인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혁,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9)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O국, I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100일 특새 말씀을 위해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영육간의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4.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 선교사 방문현황

- 주경자
- 강숙진 (키르기스스탄)
- 정소남, 미선 (러시아)
- 김봉년, 김미란 (첼랴빈스크)
- 한성우 (이르쿠츠크)
- 최정진 (알타이)
- 그레이스 김 (파나마)
- 박원근, 박윤숙 (케냐)
- 김교역, 주순 (우크라이나)
- 최재숙 (과테말라)
- 장○○
- 정○○
- 박○○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 <학교 사역>

3월19일 정부에서 학교 문을 닫은 날 저녁 스텝들과 함께 목놓아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진국들도 어려운데,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는 답이 안보였기에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스텝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우리 부부가 죽거든 염도하지 말고 바바나 밭 밑에 구덩이 두개 파고 묻어라. 그리고 우리 큰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들이 코로나 끝나면 와서 장례를 치루고 학교를 해 나갈 것이다. 이 센터는 하느님 것이니까 잘 지키면 하느님께서 너희들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부가 하늘 나라로 가면 후속 조치를 해 놓아야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일 뉴스엔 전 세계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재난임을 알렸고 영국 총리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낼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소식 등 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듣는 뉴스는 참으로 긴박함을 느끼게 했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암담했습니다.

외출을 하면 현지인들이 우리를 보고 코로나 라고 외치며 야유 하였습니다. 스텝들 30명은 집에 돌려 보내고 10명은 센터를 지키게 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었습니다. 스텝들이 많아서 간절히 두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탄자니아 정부에서 6월 29일 부터 학교 문을 열게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아이들 470여명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천마스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체온계와 소독제와 물비누를 곳곳에 비치해 두었고 선생님들에게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쓰게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육부 감사가 3번 나왔는데, 잔지바에서 제일 잘 준비한 학교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 <잔지바 국가 시험>

11월달 4학년과 6학년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 1등 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날마다 스텝들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 주시기를 4, 6학년 친구들이 국가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간절히 두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쌀 나누기>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라모단까지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웠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우기철이어서 큰 비가 자주 내려 도로가 유실되고, 집들이 잠기고, 심지어 흙집들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떠나오기전 쌀 25키로 짜리 50포와 옥수수 가루 25키로 짜리 20포를 두번에 걸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 학부형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쌀 포대를 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집들을 찾아갔는데 모두들 깜짝 놀라며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후 스텝을 통해서 쌀 25kg 짜리 20포를 이웃에 나눠 주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 받았습니



### <키비리티 할아버지 성도 천국 환송>

3월31일 돌레 교회에 나오시는 키비리티 할아버지께서 하늘 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 가면 장례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준비하고 발인 예배까지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스텝들과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 시국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코르나 19가 중국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같은 동양이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례비용과 트럭을 준비해 주시면 발인 예배까지 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장갑과 마스크만 쓴 채 삽과 팽이를 들고 트럭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두손 모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장례는 잘 끝났고 무스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문화 중 하나는 동네에서 누가 죽으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스텝들 스스로 장례식도 인도하니 감사, 아무 문제 없이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시니 감사! 감사뿐이었습니다.

### <키투두 지역 우물 성공>

4월10일 600명이 사는 키투두 지역 우물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경오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무사히 우물을 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물 후원에 감사드리며 키투두 지역에 우물을 통하여서 복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앞에 함께 복을 전하고자 동역하시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치과 치료가 끝나는데 9월경 다시 선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선지에도 이뤄질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동역자님의 곁과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께서 이것도 통제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

큰 언니가 몇 시간 씩 방언으로 기도 할때 기도 내용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매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모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니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던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모였던 큰 언니를 일찍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고 선교지에 있던 셋째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한국으로 가면 다시는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간접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셨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말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사태로 인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 호주로 진단 키트를 보내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8명의 확진자를 발표한 이후 검사할 키트 300개를 호주로 보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증가 인원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성경 번역 SIL 센터에서는 평소 지병이 있는 선교사, 고령의 선교사, 아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선교사 가정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족과 지역선교센터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도 경비행기로 이동해 산골 마을 우카룸파 SIL 센터에 모여 정부의 방침에 따르며 제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여 수도 근처에 사는 부족들도 교통편도 못 찾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수도의 지역선교센터도 폐쇄되어 현지 성경 번역 조력자들과 비거주 선교사들이 온라인 화상 통화를 하며 하던 사역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섬이나 외떨어진 곳에 있는 부족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부족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 동안 번역된 쪽 복음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져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한 부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족어의 언어현상을 분석하여 성경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다보니 사역이 끝나고 다시 만날 확률은 아주 적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다시 만나고 다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 고평 만나요." 라는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토속신앙과 저주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평강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1서 5장 4절)**